벌써 초여름?

광주·전남 7일 빗방울…주말부터 20도 넘을 듯

이번주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7일 오전께 기압골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그외 이번 주 내내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주말인 9일부터는 20도를 넘는 낮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다. 큰 일교차로 건강관리가 요망된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4일 낮 최고기온은 16~20도 분포를 보이겠다. 5일(낮 최고기온도 15~20도), 6일(17~21도)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7일 오전께 구름이 많고 일부지역에 빗방울이 내리면서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19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이후 8일부터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 주말인 9일과 10일에는 2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초여름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5일부터는 남해상의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완연한 봄 날씨지만 5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은 0~8도 분포를 보이는 등 하루의 기온 변화가 커져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가 주의된다.

또 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냉해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해상에서 7일과 9일에 1.0~3.0m로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날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지속적으로 건조해져,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기도 저기도 꽃천지 휴일이자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 시민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만개한 벚꽃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전남도, PCR 검사만 가능

전남도는 3일 "정부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 검사용 검체채취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진단에서 진료, 치료까지 연계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관련 인력들이 재배치되면 코로나 방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보건소도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남도는 기대했다.

전남도는 재유행에 대비, 최소 1개월분의 미사용 자가검사키트를 유효기간 및 보관 수용력 등을 고려해 방역용으로 비축한다.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도 우선 배포하고, 나머지 비축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한 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7일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안내·홍보한다. 현재 전남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2개소, 임시 선별검사소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하세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16일~6월18일 확대 운영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6월 4일 토요일 하루는 휴무하고, 다음날인 5일 일요일에 대체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 대상은 관내 농업인과 시민이며, 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1인 1기종에 한해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용곡분소(광산구 평동 소재) ▲용강분소(북구 용강동 소재) ▲석정분소(남구 석정동 소재) 등 3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기계 70종 623대를 임대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조치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농번기철 농업인들이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전봇대 배선 작업 노동자들 골병 든다

40kg 육박하는 도구에 어깨·목·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노출 '70%'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 결과

광주·전남의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배선 노동자들이 직업계성 근골격계 질환과 안과 질환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30㎏에 달하는 작업도구를 가지고 10m이상 전봇대를 오르내리고 약6㎏에 달하는 스마트스틱(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을 사용하는 노동으로 인해 대다수 전기 배선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확인된 것이다.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지난 1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전기노동자 직업성 질환 증언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2021년 광주·전남 전기원 노동자의 목부위 근골격질환과 황반변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전기지부 48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어깨, 목, 허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드물게 경추질환의 연관성도 포함됐다.

설문조사와 신체조사, 엑스레이 조사 등을 진행해 환경적 요인과 신체부담 작업이 전기 노동자의 신체적 기능 장애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조사결과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 활선작업 노동자들에게 목, 어깨, 팔꿈치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부의별 부담을 나타내는 신체부담작업 지수(0~9점)는 빈도가 높을 수록 높은 지수를 나타낸다. 신체부담지수 중 6~9점으로 가장 높은 지점은 어깨나 팔 동작의 반복의 경우 69.4%, 손은 70.6%로 어깨 팔꿈치 및 손목의 부담작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기배선 노동자 가운데 70% 내외가 어깨나 팔, 손 등에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2만 2900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전기배선 작업중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스틱의 사용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무거운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목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갑 교수는 전기배선 노동자들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전 후 작업'을 기본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무거운 장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이달 한달간…과징금 등 행정처분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곡산단, 평동3차 화물차고지 및 민간차고지(각화, 매월 화물터미널) 등으로,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기석 광주시 교통기획팀장은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